

삼위일체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TRINITY SUNDAY

주후 2023년 6월 4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흥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장 “전능 왕 오셔서”(통일 3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7 번 삼위일체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John) 45-15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행복”	임경찬/배예슬
설 교 Sermon	“우물가에서의 변화” (Transforming at the well)	정재흥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우물가의 여인 처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21 장 “내가 예수 믿고서”(통일 21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흥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은총의 하나님,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주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고

무덤덤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주를 잊고 지낸 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며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마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주만 바라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10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개역개정 요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NIV John 4:2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4 (주일)	6/5 (월)	6/6 (화)	6/7 (수)	6/8 (목)	6/9 (금)	6/10 (토)
	신8	신9	신10	신11	신12	신13,14	신15
본문	시91	시92,93	시94	시95,96	시97,98	시99-101	시102
	사36	사37	사38	사39	사40	사41	사42
	계6	계7	계8	계9	계10	계11	계12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6/7수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룻기 (2) – “후회없는 선택”(룻1:6-18)

토요 새벽기도회 (6/10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2) – “건강한 교회”(살전1:4-10)

지난 주일(5/28) 말씀

“소망의 하나님”(시편 146:1-5)

우리는 흔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상실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과, 즉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줄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재물의 줄, 명예의 줄, 권세의 줄, 인맥의 줄 등등.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끝까지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교/ 메/모